

**77만
행정공무원**

여성학교육 의무적으로 받는다

경륜있는 학자중심 인생강의 형식으로 엮어

입법, 사법부를 제외한 77만여 명의 우리나라 행정부공무원들이 지위고하, 남녀를 불문하고 여성 학교육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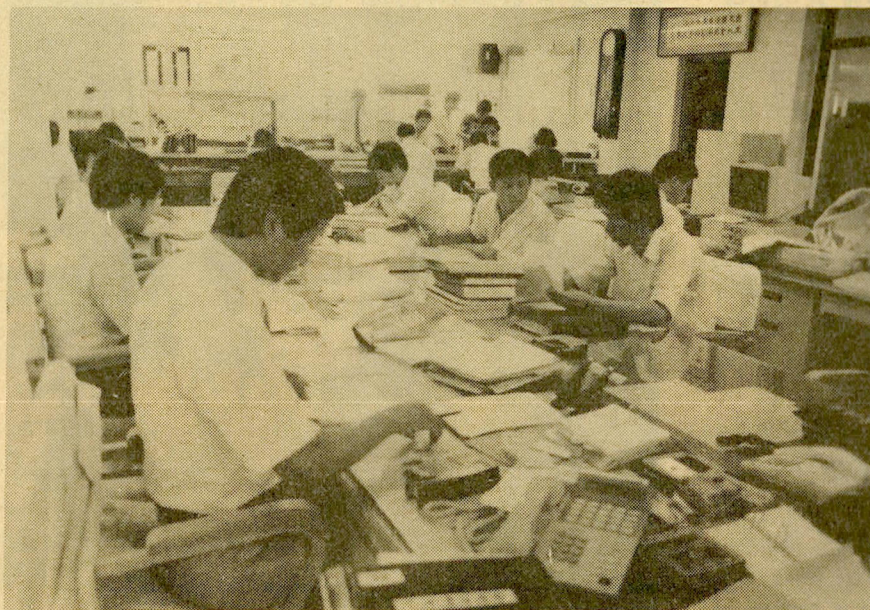
이는 총무처가 올해 안으로 전국 44개 각급 공무원훈련연수기관에 91년도부터 여성발전을 도모하는 교과목을 정규훈련 과정에 넣도록 하라는 내용의 훈련지침을 내릴 방침에 따른 것. 이로써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관련교과가 내년부터 각급 공무원 교육기관의 정규과목으로 채택되고 앞으로 공무원들은 '남녀차별의식 철폐교육'을 의무적으로 듣게 된다.

그간 가정·기술교과목 통합, 여중생을 위한 진로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실시, 가족법 개정 등으로 다져진 남녀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개혁'이 '의식개혁' 교육으로 뒷받침돼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91년도부터 본격 실시될 남녀

지난 6월 26일 세무공무원교육원에서 첫 실시된 여성관련 교육강좌를 맡은 제1호 교수는 아시 아연합신학대 주준희 박사. 주 박사는 강의 소감을 "벽이 그렇게 높은 줄은 몰랐다"며 나름의 어려움을 호소, 아무리 의무교육이라지만 피교육자들의 천차만별 의식에 맞는 교육이 결코 쉽지 않은 않으리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사실 총무처와 오랜 논의를 거쳐 여성관련 정규과목 채택을 추진해 온 정무 제2장관실의 실무진들이 밝히는 어려움은 교육 커리큘럼 마련과 교수요원의 확보 문제. 정무2장관실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남녀차별이 있는지도조차 모르는 공무원이 태반이거나 의식수준도 각양각색인 상황에서 과연 교육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런 강의를 능숙하게 맡을 사람은 누구냐 하는 문제로 가장 큰 고민을 겪었다고 한다.



지난 6월 주준희 교수 첫 강의 교수 확보가 가장 큰 문제

인사 20명, 전·현직 장·차관급 관계 인사, 기타 사회적으로 저명한 여성 등 모두 40여 명으로

의결된 이 교육프로그램은 우선 1단계로 일반직 공무원연수기관

인 총무처 산하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공무원 훈련을 맡고 있는

문교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내무부 산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7월부터 시행되며 내년부터 중앙부처 소속 연수기관(2단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수기관 등으로 확산(3단계)시키게 된다. 더 나아가 4단계로서 은행 등 정부투자기관과 민간 대기업체의 연수기관에도 여성관련 교육을 점차 넓혀 나감으로써 그 파급력 또한 상당하리라는 전망이다.

공무원사회내 여성관련 교육의 필요성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동국대 황필호 교수는 "강시 선정이 가장 힘든 난제로 알고 있다. 지나친 여성학이론 위주도 곤란하지만 인생강의만으로도 충분치는 않다고 본다. 따라서 강의내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는 계속 연구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PRINTED DATE : 90/04/11

다위 내공수

가공

PCS

PCS

PCS

PCS

PCS

PCS

PCS

PCS

PCS

PCS

PCS

PCS

PCS

PCS

PCS

PCS

PCS

PCS

PCS

PCS

PCS

PCS

PCS

PCS

PCS

PCS

교육은 단계적으로 하되 지속적으로 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세워진 교육내용의 윤곽은 '인생강의' 성격을 띠게 된다. 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청각교재를 십분 활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인생강의 형식으로 강좌를 엮기 위해 정한 교수요원의 자격도 나이와 경력이 지긋한 전·현직 학장급 이상의 학계

구성될 예정. 현재 확보된 인력뱅크 구성원은 서울여대 강문희 교수(교육심리학), 김형덕 여성정책심의위원, 숙명여대 박숙희 교수(미술사 전공), 주준희 교수(정치학) 등 15명이며 동국대 황필호 교수(철학)가 남성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단계적 추진이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